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보고의 일곱 번째 제안서 발표: 임금 절도 단속에 대한 뉴욕 정부의 노력 진일보 강화**

*새 법안은 주 외 LLC 회원들이 뉴욕 직원의 공정한 임금에 대한 거부에 책임질 것을 촉구*

*주 노동부 커미셔너에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경영주를 상대로 하는 명령 권한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임금 절도 단속에 대한 노력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새 제안서는 주 법률을 개정하여 주 외의 상위 10대 유한 책임 회사(LLC)가 임금 체납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결정에 개인적인 재정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책임은 이미 주 내와 주 외 기업 및 주 내 LLC에 적용하였지만 주 외 LLC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주지사는 노동부 커미셔너가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모든 임금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들은 열심히 일한 뉴욕시민의 손에 그들이 번 돈을 더 많이 돌려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며 노동자를 갈취하려 하고 그들이 정당하게 번 임금을 거부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서는 상습범들이 어떤 수단을 쓰든지 열심히 일한 뉴욕시민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현재의 주 노동법은 뉴욕주 노동부가 모든 기업 혹은 LLC, 외국 혹은 국내의 상위 10대 회사를 상대로 심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많은 노동자가 기업들이 파산, 새 사업 형성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산을 은폐하여 미납된 임금에 내버려 둔 채로 있습니다. 2016년 9월까지 5,306명의 노동자가 이런 법률의 허점 때문에 도둑 맞은 2014, 2015 및 2016년부터의 6,780만 달러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뉴욕 정부는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미납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014년에 주 노동부는 그 지난해에 비해 기록적인 35% 증가한 3,020만 달러의 임금을 27,000명 노동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뉴욕주의 여러 기업에 있는 노동자 착취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행정 조치의 일부로 Cuomo 주지사는 2015년에 피해 노동자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그해 전담반은 1,547개의 기업에 7,500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4백만 달러에 이르는 체납 임금과 손실을 돌려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적 노동자 보호 기획은 뉴욕주가 2015년에 28,000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3,150만 달러의 체납 임금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